

研究論文

단어‘개(犬)’의 의미전이와 그 단어로 형성된 어구(語句)의 생성연구*

이 광 호**

I. 서론	<참고문헌>
II. 본론	<국문요약>
III. 결론	

I. 서론

역사적으로 단어(어휘)는 항상 의미의 중심성분으로 연구되어 왔다. 단어의 의미를 논함에 있어 고대로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그 단어와 그것이 지시(표현)하는 대상(object)의 관계를 밝히려는 것이 의미연구의 핵심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플라토(Plato)는 자연론(naturalism)의 입장을 취하여 단어의 형태나 발음이 그 단어가 지시하는 대상(또는 사물)에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¹⁾ 아리스토텔(Aristotle)은 약속론(conventionalism)을 내세워 명명(命名)으로서의 단어와 그 의미 사이에는 약속(또는 협약)에 의하여 단어와 그 의미관계

* 본고는 2006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다. 본래의 연구 제목은 “단어 ‘개(犬)’로 형성된 어구(語句)의 생성 연구”이었으나 논문 심사과정에서 논문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심사자의 제안에 따라 논문 제목이 일부 수정되었음을 밝힌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국어학 전공.

1) Ulmann, S., “Semantics,” *An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meaning*(Oxford: Basil Blackwell, 1962), p. 1 참조.

가 성립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²⁾

이러한 견해 차이는 1930년대 소쉬르(Saussure)이후에 재론되어³⁾ 결국 언어는 투명한 어휘(transparent word)와 불투명한 어휘(opaque word)의 두 부류로 나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⁴⁾ 곧, 전자는 단어와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 사물(object)이 의미적으로 분명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고 후자는 그 관계가 불분명하여 단어와 그 단어의 의미가 ‘약속’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현대 언어학 이론의 관점에서 대상(object)으로서의 실체와, 이것을 음성으로 나타내는 단어사이에는 어떤 필연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스타트반트(Startrvant)의 언어정의에서 앞서의 두 이론 가운데 아리스토틔의 약속론(conventionalism)이 결과적으로 단어와 그 의미관계를 보다 현실성 있게 정리한 것으로 이해된다. 본 논문은 ‘개’의 의미가 실제의 대상(object)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전이되고, 이 단어가 다른 성분과 결합됨으로써 국어에서 ‘개’가 포함된 단어, 속어, 속담 등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대 국어의 단어 ‘개(犬)’는 대체로 부정적 의미를 갖는다. 다른 말로 하자면 기본적으로 실체 ‘개’가 가지고 있는 기본의미로 쓰이기보다는 제2, 제3의 의미, 곧 비속어(卑俗語)로 쓰이는 비중이 훨씬 크다. 실제로 현대국어 ‘개’는 중세국어의 기본형이 ‘가히’이고, 이것에서 ‘ㅎ’이 탈락되고 다시 두 음절이 축약되어 생성된 단어인데, 근대국어 예에서 부정적 의미로 쓰였다고 할 수 있는 몇 예를 제시한다.

(1) 근대국어 ‘개’의 몇 가지 예

- ① 개 꺄툰 중놈(狗奴才)(『역어유해』 상, 32a)
- ② 오줌을 제 흔 다리닐 들며 오줌을 개꺄티 누면(『마경초집언해』 상, 6a)
- ③ 개며 물의 니르러도 다 그러흔 곶 흐물며 사름이 썩너(『가례언해』 2, 12b)
- ④ 가희씨 모로리로다 어디 간디(『박통사언해』 상, 31a)

2) Robins, R. H., *A Short History of Linguistics*(London: Longmann, 1979), p. 18 참조.
 3) Saussure, F. de., *Course in General Linguistics*(trans., by vvade Baskin)(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59), p. 135 참조.
 4) Ullmann, S., *op. cit.*(1962), pp. 80~115; Dillon, G. L., *An Introduction to Contemporary Linguistic Semantics*(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Inc, 1977), Chapter 3 참조.

중세국어의 ‘가히’는 곡용 할 때 ‘가히’[가히]戒를 가져: 特狗戒(『능엄경언해』 8, 91), 가히 性은 苟且 苟且; 狗性 苟且(『법화경언해』 2, 113)]로 실현되기도 하는데 대체로 곡용 명사구 ‘가히, 가히’ 등등은 근대국어에서 ‘개’로 재구조화된 뒤, 이것이 현대국어로 이어진 것이다. 실제로 현대국어에서 단어 ‘개’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2) ‘개’의 사전적인 뜻

- (가) ① 개과의 동물. 사람을 잘 따라 예부터 가축으로 널리 기르. 용맹스럽고 영리하며 냄새를 잘 맡고 귀가 밝아, 사냥용·경비용·수색용·목양용(牧羊用)·애완용 따위로 널리 쓰임.
- (나) ② ‘권력자나 부정한 자의 앞잡이’를 비유하여 이르는 말.
- ③ ‘성질이 못된 사람’이나 ‘함부로 몸을 굴리는 사람’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2가)의 ①과 같은 사전적 의미, 곧 사실을 설명하는 의미보다는 (2나)의 ②, ③과 같은 의미가 매우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 현대국어의 현실이다. 그렇게 의미가 변화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게 밝혀내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개’에 대한 긍정적이고, 유용한 측면보다는 개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의미가 부각되면서 그것이 비유적으로 관용화되어 결국 (2나)의 ②, ③과 같은 뜻을 가지게 되었을 것임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곧, (2가)의 ①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개’에 대한 의미는 기본적인 의미로 결코 부정적이라기보다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특별히 개에 대한 부정적 의미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언어사용 예에서도 그렇겠지만 국어의 단어 ‘개’는 좋은 의미로 쓰이기보다는 그 사용 예와 범위에 있어 나쁜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국어의 현실이다.

본고에서는 이렇게 나쁜 의미로 쓰이고 있는 단어 ‘개’와 연관된 단어형성(word-formation)⁵⁾과 관용어(idiom), 그리고 속담 등에 대한 국어의 언어 현상을 제시하고 그것을 분석하여 그 실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5) 단어의 종류는 이익섭, 『한국어문법』(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52쪽에 따라 단어에는 단일어와 합성어가 있고 다시 합성어에는 복합어와 파생어가 있다는 이론에 따라 분류한다.

말하자면 단어 ‘개’가 포함된 복합명사[예: 개똥·개자식·개털모자 등], 관용어(언어)[예: 미친개·개떡 같다·바람난 개 등], 속담[예: 개발의 편자·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올타리(답싸리)밑에 개 팔자] 등의 구성을 분석하고 그 의미의 실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II. 본론

1. 단어‘개+ 명사’,‘명사+개’형식의 복합명사

대체로 부정적 의미로 쓰이는 ‘개’는 다른 성분들과 결합되어 복합명사를 형성하는 예들이 많다. 곧, ‘개발·개구멍·개똥·개떡’ 및 ‘똥개·사냥개’등등의 예가 바로 그것이다. 다음 (3)에 그 예들을 제시한다.

(3)

(가) ‘개+ 명사’형식의 복합명사

개발·*개집·*개보지·*개좃·개눈·*개똥·개구멍(개구녕)·개털
·*개자식·*개녀석·*개년·*개쌍년·*개놈·개꼬리·개발·개코
·개값·개가죽·개뻥다귀(구)·개팔자·개호주(범의 새끼)·개판·개차
반·*개지랄·개죽음·개밥·개잠·개집·개씨바리·개싸움·개소리·
개빨·개벼룩·*개망나니·개떡·개다리·개꿈·개기름·개혜엄·개장
수·개벼룩 등등

(나) ‘명사+ 개’형식의 복합명사

*똥개·삽살개·사냥개·들개·암개·숫개

(3)의 예들은 대체로 부정적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 명사’형식의 복합명사에 ‘개’가 앞뒤에 실현된 예들이다. 이 복합명사들은 부정적 의미의 ‘개’가 수식어(부가어) 또 피수식어(핵어)가 되어 그 복합명사 전체의 의미가 부정적 의미로 쓰인 것이다. 곧, (3가)의 예에서 *표를 붙인 복합명사는 부정적 의미의 ‘개’에 다시 비어(卑語)나 속어(俗語)가 연결됨으로써 그 의미가 한층 더 나쁜 의미를 나타내게

되었다. (3가)에서 비록 선행하는 ‘개’뒤에 나쁜 의미의 명사가 아닌 보통명사가 연결되었지만, 그래도 ‘개’에 연결된 복합명사 전체의 의미는 부정적 의미를 갖게 된다. 따라서 예 (3)전체의 복합명사들은 거의 ‘상말(점잖지 못한 말)’ 또는 ‘비속어(卑俗語)’가 되는 것이다. 다만, 예 (3)에서 사실 자체를 나타내는, 다른 말로 은유나 비유적인 용법이 아닌 ‘개발·개눈·개다리·개벼룩’ 등등은 비속어라고 할 수 없을지는 모르나 그 의미가 호의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3나)의 경우는 그 생산성, 곧 복합명사의 숫자가 (3가)에 비하여 훨씬 낮다. 다시 말하자면, 대체로 부정적 의미의 ‘개’가 다른 명사에 선행하여 생성된 복합명사는 그 생산성이 높아서 비록 복합명사로 굳어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예: 개나라—나쁜 나라, 개나무—쓸모없는 나무, 등등) 그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는 데 반해, (3나)의 예들은 적어도 ‘명사+개’형식의 복합명사의 생성은 그 생산성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과 같은 복합명사의 구조는 다음 (4)과 (5)같이 형식화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시 분류할 수도 있다.

(4) 개+X(명사)(=개+명사)

(가) 개+순수국어 명사 :

개떡·개불알·개소리·개떼·개오줌·개똥·개구멍·개털·개값·개가죽·개뻥다귀(구)·개놈·개꼬리·개눈·개다리·개털·개발·개코·개밥·개씨바리·개싸움·개꿈·개기름·개혜엄·개가죽·개망나니·개죽음·개년·개녀석·개뿔·개썩·개좃·개보지 등등.

(나) 개+한자어 명사 :

개자식(-子息)·개 팔자(-八字)·개판(-板)·개차반(-茶盤)·개죽(-粥)·개족보(-族譜)·개장국(-醬-)·개잡년(-雜-)·개나발(-喇叭)·개호주(-豪主)·개수작(-酬酌)·개소주(-燒酒)·개백정(-白丁)·개망신(-亡身) 등등.

(5) X(명사)+개(=명사+개) : 똥개·삽살개·사냥개·들개·암개·수캐 등등.⁶⁾

6) (5)에 제시된 예 가운데서 ‘삽살개·사냥개·들개·암개·수캐’ 등은 (4)의 예들에 비하여 그 부정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예들이 문맥에 쓰일 때는 그 정도는 낮으나 그 의미가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삽살개처럼 살랑댄다, 그놈은 사냥개다, 왜 들개처럼 쏘다니니?, 남자들이 수캐처럼 여자들을 따라 다닌다’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보편적으로 국어의 복합명사를 포함하여 복합어 구성에 있어 ‘순수국어+순수국어’의 결합구조가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다. 특히 복합명사에 있어 ‘순수국어 명사+순수국어 명사’, ‘한자어 명사+한자어명사’의 구성이 ‘순수국어 명사+한자어 명사, 한자어 명사+순수국어 명사’의 구성보다 그 생산성이 높고 그 성립도 자연스럽다. 이와 같은 현상은 비록 한자어명사가 국어화되어 순수국어 명사와 같은 지위를 획득했다 하더라도 아직도 ‘한자어’가 외래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수국어와 한자어가 복합명사를 이루게 될 때 그 성립에 지장을 주거나 자연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개’를 위요(圍繞)한 복합명사 구성에 있어 (4나)와 같은 예는 비록 그 숫자에 있어 (4가)에 비하여 뒤떨어지나 그 성립성에는 어떤 부자연성도 나타나지 않는다. 곧, ‘개자식·개 팔자·개백정’등에서 ‘자식(子息)·팔자(八字)·백정(白丁)’ 등이 한자어 명사라 하더라도 앞의 순수국어 ‘개’에 통합되어 복합명사를 형성하는 데 어떤 부자연성도 찾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방면의 좀 더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4나)에 제시된 예들에서 ‘개’에 후행하는 한자어 명사들, 곧 ‘자식·팔자·호주·관·차반·죽·장국·잡년·나발·수작·소주·백정·망신’ 등이 부정적 의미의 ‘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쓰이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 한자어 명사들이 이미 순수국어화의 단계에 이른 것으로 이해된다.

의미적으로는 부정적 의미의 ‘개’가 형태·통사적으로 후행명사와 통합되어 수식어의 기능을 함으로써 그 복합명사 전체의 의미는 부정적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복합명사 구성에 있어서는 ‘개’에 후행하는 명사가 핵이 되어 있으나 의미면에서는 오히려 ‘개’가 ‘의미의 핵’이 되어 그것에 후행하는 명사에 부정적 의미를 전이(轉移)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5)형식의 복합명사는 (4)와 다르게 명사가 ‘개’에 선행하여 ‘개’를 수식하는 것이다. 앞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그 생산성이 (4)형식에 비하여 매우 낮다. 이 복합명사는 특히 ‘한자어 명사’가 ‘개’에 선행하는 예가 드물거나 없을 듯하다. 굳이 그 예를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가령, 국어에서 진도(珍島)개·풍산(豊山)개 등을 들 수 있으나 이 복합명사의 성격은 전혀 부정적 의미의 복합명사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하겠다.

2. '수식어(형용사·동사)+개'형식의 복합명사구

(3가)와 (3나)와 같은 '개+명사, 명사+개'형식의 복합명사는 선행의 '개', '명사(X)' 등이 후행의 '명사(X)'나 '개'등을 수식하는 구조로 선·후행의 '개'가 부정적 의미로 작용하여 그 전체 복합명사의 의미를 역시 부정적으로 만든다. 대체로 그 복합명사를 비어(卑語), 상말 등으로 쓰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유형의 복합명사를 제외하고 '수식어+개'라는 구조의 명사구(동사, 형용사 등의 수식을 받는 '개' 복합명사구)를 생성시키는 예가 매우 흔하다. 이런 예들은 '개+명사(X), 명사(X)+개'형식의 복합명사와 다르게 '개'에 선행하는 수식어가 통사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하자면 통사성분으로서의 '수식어'가 '개'를 피수식어로 갖게 됨으로써 그 의미의 적격성이 보장되기만 한다면 그 생산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수식어(동사·형용사)+개'형식의 명사구 형성은 그 의미가 제한적이지만 많다면 그 숫자는 무한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6)에 그 형식과 예를 제시한다.

(6) '수식어(동사·형용사)+개'형식의 명사구

(가) '동사+개' :

바람난 개·미친 개·주인도 몰라보는 개·비루먹은 개·눈먼 개·닭 쫓던 개(지붕 쳐다보기) 등등.

(나) '형용사+개' : 늙은 개·주인 없는 개 등등.☞

(6)의 예들은 '명사+개'형식의 '들개·똥개·사냥개'등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사적 구성을 가지고 있는 명사구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곧, (6가)에서 수식어는 동사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으)ㄴ', '-는'이 통합되어 후행하는 '개'를 수식하고 있는 예이다. (6나)도 형용사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은·-는'이 통합되어 형성된 명사구인 것이다.

(6)과 같은 명사구에서는 그 통사적 구성에 따르면 그 성립가능성이 무한히 높을 것 같으나 실제로 (6)의 구성이 일정한 어휘와만 결합하여 그 의미를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제한하는 제약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실제의 언어에

서 ‘못 먹는 개, 병난 개, 슬픈 개’ 등등의 구성이 무한대로 가능하나 거의 ‘숙어(idiom)’로 굳어진 명사구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3가)의 예로 제시된 ‘개+명사’, (6가)와 (6나)의 예로 제시된 ‘수식어+개’ 형식에서 (3가)의 ‘개’가 후행명사를 수식하거나 또는 (6)의 수식어가 후행의 ‘개’를 수식하게 되는 경우 ‘개’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의미는 ‘개’자체가 수식어가 될 때나 피수식어가 될 때, 어느 때나 ‘개’의 부정적 의미를 다른 성분에 전이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도표로 보이면 다음 (7)과 같다.

(7) ‘개’의 부정적 의미전이(轉移)⁷⁾

(가) 복합명사 :	<table style="border: none;"> <tr><td style="padding: 2px 5px;">개</td><td style="padding: 0 10px;">+</td><td style="padding: 2px 5px;">명사</td></tr> <tr><td style="padding: 2px 5px;">수식어</td><td></td><td style="padding: 2px 5px;">피수식어</td></tr> </table>	개	+	명사	수식어		피수식어	→	<table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style="padding: 2px 5px;">의미전이</td></tr> </table>	의미전이
개	+	명사								
수식어		피수식어								
의미전이										
(나) 통사적 명사구 :	<table style="border: none;"> <tr><td style="padding: 2px 5px;">동사·형용사</td><td style="padding: 0 10px;">+</td><td style="padding: 2px 5px;">개</td></tr> <tr><td style="padding: 2px 5px;">수식어</td><td></td><td style="padding: 2px 5px;">피수식어</td></tr> </table>	동사·형용사	+	개	수식어		피수식어	→	<table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style="padding: 2px 5px;">부정적 의미</td></tr> </table>	부정적 의미
동사·형용사	+	개								
수식어		피수식어								
부정적 의미										

(7)의 도표는 복합명사나 통사적 명사구 구성에서는 각각 ‘개’의 후행 명사구, 수식어(동사, 형용사)에 후행하는 ‘개’가 핵명사이나 의미면에서는 언제나 ‘개’의 부정적 의미가 의미의 핵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3. ‘개’관련 명사구 구성의 확대

‘개+명사, 명사+개’ 및 ‘수식어(동사·형용사)+개’ 형식의 복합명사와 통사적 명사구 등은 그 구성에 있어 또 다른 성분이 통합됨으로써 좀 더 확대되는 ‘명사구’를 형성하는 예들이 있다. 곧, 대체로 ‘개+단일명사’ 형식의 복합명사들은, 이것에 또 다른 명사구가 연결됨으로써 좀 더 확대된 복합명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우선 다음 (8)을 보기로 한다.

7) 김민수, 『국어의미론』(일조각, 1981), 267쪽, 이익환, 『의미론개론』(한신문화사, 1985), 155~156쪽 참조

(8) ‘개’ 복합명사의 확대

(가) 접미사 파생명사: [[개+명사어간]+접미사]

개구멍(녕)+바지·개다리+질·개망신+살·개좃+부리

(나) ‘개’ 복합명사+명사: [[개+명사]+명사]

개다리+소반·개구멍+서방·개귀+쌀지·개다리+상제(喪制)·개다리+참봉(參奉)·개다리+출신(出身)·개다리+헌함(軒檻)·개떡+수제비·개
 똥+밭·개똥+번역(翻譯)·개똥+상놈·개똥+참외(차미)·개밭+코·개
 똥+철학(哲學)·개코+망신·개털+모자·개썩+새끼·개소리+괴소리·
 개발+새발 등등

(다) ‘개’조사 명사구+명사: [[개+격조사]+명사]

개발의(에)+도토리·개사+값·개발의+편자·개썩에+보리알·개구멍에
 +망건치기 등

위 (8가)의 복합명사는 ‘개+명사어간X구조’에 다시 접미사가 통합되어 파생명사를 이룬 예이다. 그러니까 ‘개구멍(구녕)’이라는 복합 명사가 생성되고 그것에 다시 동사 어간 ‘받’(受)에 접미사 ‘-이’가 접미(接尾)된 것이 바로 ‘개구멍(구녕)바지’라는 파생명사구인 것이다. ‘개다리질’은 복합명사 ‘개다리’에 행위를 나타내는 접미사 ‘-질’이 연결된 파생명사라는 것이다. 그 나머지 ‘개망신살·개발싸개·개좃부리’ 등도 그 복합명사(또는 파생명사) 구조가 각각 [개+[망신+살]] 또는 [[개+망신]+살], [개+[밭싸+개]] 또는 [[개+밭싸]+개], [[개+좃]+부리] 또는 [개+[좃+부리]] 등 두 가지로 해석되어도 적격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결국 [개+명사]에 접미사가 연결된 것으로 이해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8나)는 그 통합의 선후관계는 복합명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결국 3개의 명사가 통합되어 복합 명사를 이룬 것임에는 틀림없다. 곧, 이 복합명사의 구조는 [[개+다리]+소반], [[개+구멍]+서방] 또는 [개+[구멍+서방]] 등이나 실제로는 [[개+명사]+명사] 형식이 대다수이고 [개+[명사+명사]] 형식은 희소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8나)와 같은 복합명사는 그 기원이 통사적 구성(Syntactic structure)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대체로 이와 같은 복합명사는 앞으로 살펴볼 ‘개+같은+명사’(예: 개 같은 놈, 개 같은 자식, 개똥같은 철학, 개똥같은 세상, 등등)와 같은 구조에서 ‘같은’이라는 수식성분이 삭제되어 [개+명사](예: 개놈, 개

자식, 개똥철학, 개똥세상(?)를 형성하게 된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같은’이라는 수식 성분 이외에도 세 개의 명사가 통합되어 복합명사를 이룰 경우, 명사와 명사 사이에 순수한 단어형성규칙(word-formation rule)에 따른 복합명사 형성이 아니라 통사적으로 명사와 명사사이에 개재하는 통사적 성분(syntactic component)있을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곧, (8나)의 ‘개다리소반, 개구멍서방, 개귀쌈지’ 등등은 각각 ‘개다리처럼 생긴 소반(상다리가 개다리처럼 생긴 작은 상), 개구멍으로 몰래 드나드는 서방(남몰래 드나들면서 여자와 부부처럼 지내는 일, 또는 그 남자), 개귀처럼 생긴 쌈지(개귀처럼 생긴 담배를 넣는 기구)’ 등등의 통사·의미적 관계가 극도로 축약됨으로써 형성된 복합 명사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8다)의 예들은 속격조사 ‘의, ㅅ’, 처격조사 ‘에’ 등에 따라 통사적으로 연결된 복합 명사구이므로 그 기원이 통사적 구성임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은 것이다.

4. ‘개’복합명사의 통사적 구성과 그 제약

‘개똥, 개 팔자, 미친 개, 개구멍바지, 개구멍서방, 개밥에(의) 도토리’ 등등의 복합명사들은 그 자체로도 일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복합명사들은 일정한 통사적 구성을 이루게 되어 그 제약성이 강하다. 따라서 이 복합명사들은 통사적 구성에 있어 어느 일정한 성분들과만 연결되어 거의 속어(idiom)처럼 쓰이게 되는 것이 국어의 현실이다.

국어의 동등비교구문(同等比較句文)에서 ‘X와/과 같다’가 가장 보편적인 형식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대체로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개’와 연관된 명사들은 ‘개와 같다’의 기본구조에서 ‘와’가 생략되고 형용사 ‘같다’가 수식어 ‘같은’으로 바뀐에 따라 ‘개 같은 Y’형식의 명사구 형성이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경우 대체로 통사적 구조에 있어서는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는다. 다음 예 (9)에서 그 사실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9) ‘개(와) 같은’형식의 통사적 명사구 구성

개(코, 똥, 가죽, 뼈다귀, 뺨, 백정, 망나니, 떡, 돼지, 좃, 보지, 발싸개, 등등)

같은 놈(년, 자식, 새끼, 세상, 팔자, 등등)

(9)의 형식에 있어, 단순히 수식어 '같은'에 선행하는 '개'를 비롯하여 그 '개'에 또 다른 명사가 연결되어 복합 명사를 형성하게 된 예(개 코, 개똥, 개가죽, 개뺨 다귀, 등등)들도 그것에 후행하는 수식어 '같은'에 통합되는데도, 별다른 제약이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개뺨 같은'을 제외하고는 부정적 의미의 '개'에 '같은'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동등비교구문(同等比較句文)에서 서로 의미적으로 상반되는 예를 제외하고서는 그 연결에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개 같은'과 똑같이 '개 코 같은, 개똥 같은, 개뺨다귀 같은, 등등'이 후행명사 '놈, 녀석, 자식, 새끼, 세상, 등등'에 통합되어 '개코 같은 놈(녀석, 자식, 새끼, 등등)'이 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통사적 명사구가 된다는 것이다.

5. '개' 및 그 복합 명사의 부사구(副詞句)구성

(9)의 '개 같은'구성이 후행의 명사를 수식하여 좀 더 큰 명사구를 이루는 것에 대하여 '개같이'는 '개같-'에 부사과생접미사 '-이'가 접미 되어 부사구를 이루는 예들 또한 매우 생산적이다. (9)의 '개 같은'이 후행의 명사를 수식함으로써 또 다른 명사구를 이룸에 반하여 이 '개같이'는 후행의 동사구를 수식함으로써 그 동사구 전체의 부정적 의미를 한층 더 나쁜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9)의 예들이 비교적 자유로운 통사적 구성을 이룸에 비하여 다음 (10가)의 '개 같이'는 그것에 후행하는 동사가 극히 제한적인 통합관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10)

(가) '개 같이' 형식의 통사적 부사구 구성

개(똥, 좃, 코, 새끼, 등등)같이 놀다(굴다, 처먹다, 여기다, 되다, 등등)

(나) '개' 복합명사+처격조사'에'

개 씹에 보리알 끼듯 한다, 개발에 주석편자, 개털에 벼룩 끼듯 한다, 개구

멍에 망건치기다, 개밥에 도토리 신세다, 등등

- (다) ‘개’ 복합 명사+처격조사+보조사 ‘은’
개눈에는 똥만 보인다, 개싸움에는 몽둥이가 제일이다, 등등
- (라) ‘개’ 복합 명사+도구격조사 ‘으로’
개 콧구멍으로 안다, 개젓으로 안다, 등등
- (마) ‘개’+공동격조사 ‘하고’
개하고 똥 다투라?

(10가)와 다르게 (10나)는 ‘개’ 또는 ‘개’ 복합 명사에 처격조사 ‘에’가 통합되어 부사구를 이루고, 이것이 그것에 후행하는 동사와 통합되어 부정적 의미를 이룬 것이다. (10다)는 (10가)와 다르게 반드시 ‘개’ 복합 명사에 처격조사 ‘에’와 보조사 ‘는’이 통합되어 후행의 동사를 수식하는 예이며 (10라)는 (10나)와 (10다)같은 복합 명사에 도구격조사 ‘으로’가 통합된 동사구이고 (10마)는 ‘개’와 공동격조사 ‘하고’가 통합하여 동사구를 이룬 것이다. 따라서 ‘개’와 연관된 명사들이 특정한 성분과 결합하여 제한된 부사구를 이루게 되고 그 성분 전체의 의미는 결국 부정적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6. ‘개’와 연관된 복합명사의 문장성분

(10)의 예들이 부사어가 되어 수식어라는 문장성분이 되듯이, ‘개’ 및 그 복합명사들이 문장성분 주어, 목적어로 쓰인 예들이 있는데, 이 명사들은 거의 연어(連語)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극히 그 구성에 있어 제한적이다. 다음 (11)에 그 예를 제시하고 그 제약 등을 논의하기로 한다.

(11)

- (가) 주어(주제어)
개가 웃는다. 어느 집 개가 짓나? 개똥참외는 먼저 맏는 이가 임자다. 개기름이 끼다. 개기름이 흐르다. 개가 똥을 마다한다. 개 팔자가 상팔자다. 개보름 쇠듯 한다. 개 머루 먹듯 한다. 등등
- (나) 목적어 성분
개나발 불 지마! 개나발 불고 있네. 개판(을) 치다, 개망신(을) 당하다. 개수

작 떨다(떨지마. 부리다). 개지랄(을)떨다. 개죽음(을) 당하다. 개죽음을 하
다. 개잡을 자다. 양반은 죽어도 개혜업은 안 친다. 개꿀 꾸다. 등등

(11가)의 ‘개’ 및 그 복합 명사가 그것에 후행하는 서술어(동사구)에 주어 명사구로 쓰이고 있다. 곧, 부정적 의미의 ‘개’ 및 그것에 관련된 복합 명사가 그 문장 전체의 주어(주제어)가 되어 그 문장 전체의 의미를 부정적인 뜻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개’ 및 그것과 연관된 복합 명사 주어에는 일정한 동사들만이 통합된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곧, ‘개기름—끼다·흐르다, 개—짓다’에서 주어 명사구의 의미자질(의미 특성, semantic feature)에 따라 그것에 걸맞는 동사만이 통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특성은 이 문장들을 곧바로 관용어구(idiom)로 굳어지게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1나)의 ‘개’ 및 그것과 관련된 복합 명사가 문장성분에서 목적어 명사구로 실현되는 경우에도, 그 목적어를 지배할 수 있는 타동사들은 그 의미제약에 따라 극히 제한된 통합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다. 곧, ‘개나발—불다·불지마, 개판—치다, 개망신—당하다, 개수작—떨다·부리다, 개지랄—떨다’ 등등의 그 예가 그것이다. (11가)와 같이 ‘개’ 및 그 복합 명사구 목적어와 그것을 지배하는 동사구들도 그 통합에 있어 극히 제한적이어서 결국 주어성분의 경우와 같이 관용어구를 형성하게 되고 그 의미도 역시 부정적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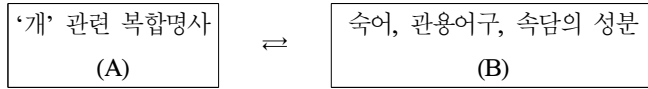
문장 성분에 있어 주어 및 목적어 이외에 문장의 부속성분으로서의 수식어,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개+형용사 같.’형식의 ‘개 같은, 개좃같은, 개똥같은’형용사구와 ‘개+같이·개발에, 개씹에·개눈에는·개싸움에는, 개 콧구멍으로, 개 하고’와 같은 부사구 성분이 있다.

7. ‘개’ 및 그 복합 명사구와 속담

국어에서 단어 ‘개’ 및 그것과 연관된 복합 명사들과 이것에 통합되는 동사구들은 어느 면에서 주어, 관용어구, 속담 등에서 추출된 것으로 그 의미가 대체로 비속어(卑俗語)에 속하는 문장 성분인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국어의 동물 명칭으로서의 단어 ‘개’는 그 부정적 의미(비속어, 상말 등)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것에

후행하거나 또 선행하여 또 다른 부정적 의미를 나타내는 복합 명사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것은 속어, 관용어구, 속담 등의 성분에서 추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관계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 (12)와 같다. 곧, (A)로 생성된 복합 명사구는 실제로 (B)에서 쓰이고, 이것은 다시 (A)를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12) ‘개’ 관련 복합명사구와 속어, 관용어구, 속담 등과의 관계



우선 다음 (13)에 ‘개’와 관련된 복합명사들이 속어나 속담 등에 쓰인 예를 제시한다.

(13) ‘개’ 관련 복합명사의 속어, 관용어, 속담

(가) 비문장유형의 속어, 관용어구, 속담

개구멍에 망건치기, 개구멍으로 동량 갓을 굴러낼 놈, 개밥에 도토리, 개돼지 만도 못한 놈, 개소리 괴소리, 답싸리(울타리)밑에 개 팔자, 상갓집 개, 개발에 주석편자, 미친 개, 바람난 개, 개똥철학, 개고기, 등등.

(나) 문장 유형의 속담

개좃같이 노네!, 개똥참외는 먼저 맏는 이가 임자라, 개똥철학 읊고 있네!, 개 눈에 는 똥만 보인다, 개 씹에 보리알 끼듯 한다, 양반은 죽어도 개혜엄은 안 친다, 개 싸움에는 몽둥이가 제일이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개꼬리 삼년 두어도 황모 못 된다, 개꼬리 삼년 묻어도 족제비 꼬리 안 된다, 개 발싸 개 같다, 개방귀 편다, 개 콧구멍으로 안다, 개뿔이라고 해라, 개 쾌듯 한다, 개고기 같다, 어느 집 개가 짓나?, 미친개한테 물렸다, 이걸 죽이고 개 값을 치리?(물어?), 약에 쓰려면 개똥도 없다.(드물다), 개가 똥을 마다한다, 개가 옷을 일이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산다, 개 꼬락서니 미워서 낙지 산다, 개도 나갈(도망갈)구멍을 보고 쫓는다, 개도 닳새가 되면 주인을 안다, 개도 무는 개를 돌아본다, 개도 손들 날이 있다, 개머루 먹듯 한다, 개 못된 것은 들에 가 짓는다, 개 못된 것은 부뚜막에 올라간다, 개 보름 쇠듯 한다, 개뼈다귀 은(銀) 올린다, 개 쇠 발괄 누가 알꼬?, 개 장수도 올라미가 있어야 한다, 개하고

똥 다투랴, 도둑이 들려면 개도 안 짓는다, 등등.

위 (13)에 열거한 속어·관용어구·속담 등은 대체로 ‘개’를 비롯하여 ‘개’관련 복합명사들이 그 의미 결정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대체로 부정적 의미의 단어 ‘개’가 의미의 핵(核)을 이루고, 그 ‘개’와 연관된 다른 단어나 어구가 결합하여 복합명사구, 속어, 관용어구가 생성되고, 이것들이 문장성분인 주어, 목적어, 수식어(형용사구, 부사구)등을 이루면서 ‘속담’이 된다는 것이다. (13가)는 그 전체를 보자면 결국 명사구가 되는데, 이 예들은 그 명사구 자체가 한 의미덩치(semantic chunk)가 되어 또 다른 문장성분과 연관되지 아니 하더라도 완전한 의미를 나타내는 특성을 갖는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 명사구는 그 자체가 완전한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과 똑같은 기능을 갖는다는 것이다. 물론 이 명사구들은 좀 더 큰 문장구조에서 모두 주어, 목적어 등의 성분으로 쓰일 수 있다. 가령, ‘이 세상에서 울타리(답싸리)밑에 개 팔자가 최고지 최고야, 야, 누가 개밭에 도토리를 편들겠냐?, 그녀에게 진주목걸이는 개밭이 편자다’ 등등의 예에서 각각 주어, 목적어, 서술어 등의 성분으로 (13가)의 비 문장 유형의 속담이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 반면에 (13나)의 문장으로 된 속담은 어떤 사실을 좀 더 실감 있고 강조해서 말하기 위하여 ‘-라고, -라는 말이 있듯이’와 같은 형식으로 인용되어 쓰이는 예가 많다. 곧, ‘개똥참외는 먼저 맏는 이가 임자라고 길에서 주운 것은 줍는 사람 것이 지, 도둑이 들려면 개도 안 짓는다고 그것을 누가 감쪽같이 가져갔다’, ‘개꼬리 삼년 두어도 황모 못된다는 말이 있듯이, 못된 놈이 늙어서는 착한 사람 될까?, 개갈이 벌어서 정승같이 산다는 말이 있듯이 돈 되는 일은 이것저것 가릴 것 있나?’ 등등의 예가 그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13나)의 속담들은 그 자체로 쓰이거나 다른 문장의 서술어로 쓰이는 예가 훨씬 많다.

물론 (13)에 제시된 ‘개’ 관련 복합명사로 구성된 속어, 관용어, 속담 등은 부정적 의미의 ‘개’가 의미의 핵심을 이루고, 이것이 다른 성분 모두에게 영향을 끼쳐 전체적으로 부정적 의미(비어, 상팔, 등등)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다.

III. 결론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가족 같은 동물인 ‘개’가 국어에서 부정적 의미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로 쓰이는 데는 그 근거가 있을 것이다. 가령, ‘깨끗하지 못하다, 남의 눈치만 살핀다, 똥을 아무데나 누다, 먹을 것만 찾는다, 아무데서나 짹짹기를 한다, 냄새를 잘 맡는다’ 등등의 부정적 의미가 중심이 되어 동물 명칭 가운데 ‘개’가 대표적으로 나쁜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가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실제로 미련함을 나타 낼 때의 ‘곰’, 간사하거나 알미움을 나타 낼 때의 ‘여우’, 성기의 크기를 나타낼 때의 ‘말쭙’, 기분 나쁨을 나타낼 때의 ‘까마귀’ 등등 외에 ‘쇠심줄, 황소고집, 쥐새끼, 늑대, 너구리, 새 새끼’ 등등의 동물명칭 단어가 국어에서 쓰이고 있으나 그 빈도수에 있어서는 ‘개’ 및 ‘개’ 관련 속어, 관용어, 속담 등에 비해서는 전혀 그 상대가 되지 않는다.

유용성이나 애완용 등의 긍정적 의미의 ‘개’를 제외하고, 부정적 의미의 ‘개’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도 주로 비어, 속어를 나타내는 의미로 쓰이고 이 단어가 다른 요소와 결합하여 보다 큰 명사구를 이루게 된다. 이 확대된 명사구는 그 형식에 있어 ‘개+명사(개발, 개똥), 명사+개(똥개, 사냥개)’가 있고 ‘개+명사’는 다시 ‘개+순수국어 명사’(개떡, 개불알)와 ‘개+한자어 명사’(개 팔자, 개 족보) 등을 들 수 있다. 다른 형식으로는 ‘수식어(형용사, 동사)+개’가 있는데, 그 예로는 ‘바람난 개, 미친 개, 늙은 개, 주인 없는 개’등을 들 수 있으며, ‘개+명사’ 구성에서는 이것에 다시 접미사가 연결되어 ‘개구멍바지, 개 망신살’등의 복합파생명사를 이루기도 하는 것이다. 한편, 속격조사나 처격조사가 통합되어 ‘개발의 편차, 개구멍에 망건치기’등의 명사구를 형성하는 예도 있다.

‘개’ 관련 통사적 구성에서는 ‘개+같은’에 다른 명사가 연결되어 ‘개 같은+놈’(년, 녀석, 세상, 등등)의 명사구를 이루기도 하고 ‘개’ 복합명사에 처격조사 ‘에’가 통합되고, 이것에 보조사 ‘은’이 통합되어 각각 ‘개발에 도토리, 개눈에는 똥만 보인다’와 같은 명사구나 속담을 이루기도 한다. 도구격조사 ‘으로’, 공동격조사 ‘하고’가 ‘개’ 관련 복합명사에 통합되어 ‘개 콧구멍으로 안다, 개하고 똥 다투랴!’ 등의 속담을 이루기도 한다. 문장구성 성분에 있어 수식어를 제외하고 주어 성분이나 목적어 성분으로 ‘개’ 및 개 관련 복합명사가 쓰이는 예는 각각 ‘개가 웃는다, 개

기름이 까다 및 ‘개나발 불지마!, 개잡을 자다’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개’와 연관된 명사구 확대의 형식을 정리하면 다음 (14가)과 같고 그 의미의 전이 형식은 (14나)과 같으며 ‘개’ 관련 복합명사와 속어, 관용어구, 속담 등과의 생성관계는 (14다)와 같다.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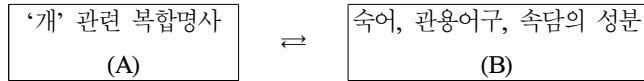
(가) ‘개’연관 명사구 확대의 형식

- ① 개+명사, 명사+개
- ② 수식어(형용사, 동사)+개
- ③ ‘개’관련 명사구+접미사
- ④ ‘개’+격조사(속격, 처격, 도구격, 공동격)+명사

(나) ‘개’의 부정적 의미의 전이

- ① 복합명사 :
- | | | |
|--------|---|-------|
| 개 | + | 명사(X) |
| 수식어 | | 피수식어 |
| 부정적 의미 | → | 의미 전이 |
- ② 통사적 명사구 :
- | | | |
|--------|---|--------|
| 동사·형용사 | + | 개 |
| 수식어 | | 피수식어 |
| 의미전이 | → | 부정적 의미 |

(다) ‘개’ 관련 복합명사와 속어, 관용어구, 속담의 성분



끝으로 긍정적인 의미로 ‘개’가 쓰이는 예들이 물론 있다. 이점에 대하여는 차 후 동물명인 ‘개’와 연관된 또다른 논의에서 다루고자 한다.

참고문헌

김민수, 『국어의미론』. 서울, 일조각, 1981.
 이익섭, 『한국어문법』.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이익환, 『의미론 개론』. 서울, 한신 문화사, 1985.

Dillon, G. L., *An Introduction to Contemporary Linguistic Semantics*.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Inc, 1977.

Robins, R. H., *A Short History of Linguistics*. London: Longmann, 1979.

Saussure, F. de., *Course in General Linguistics*(trans., by vvide Baskin).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59.

Ullmann, S., "Semantics." *An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meaning*. Oxford: Basil Blackwell, 1962.

국 문 요약

국어 어휘 가운데 사람들과 매우 가까운 ‘개’가 부정적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로 쓰이는 데는 그 근거가 있을 것이다. 곧 ‘개’는 ‘깨끗하지 못하다, 남의 눈치만 살핀다, 똥을 아무데나 누다, 아무데서나 짹짹기를 한다’ 등등의 부정적 의미가 중심이 되는 동물명칭 가운데 대표적인 단어가 아닌가 한다.

몇몇 가지의 긍정적인 의미인 ‘개’를 제외하고 부정적 의미의 ‘개’는 그 자체로 비어, 속어를 나타내는 의미로 쓰이고 이 단어가 다른 요소와 결합하여 보다 큰 명사구를 이루게 되는데, 이 명사구는 그 형식에 있어 ‘개+명사’, ‘명사+개’가 된다. 전자는 다시 ‘개+순수국어 명사’와 ‘개+한자어 명사’로 나뉘어진다.

또 다른 구성으로 ‘수식어+개’, ‘개+명사+접미사’가 있으며 속격조사나 처격조사, 그리고 도구격조사, 공동격조사가 통합되어 통사적 명사구를 이루기도 한다. 문장 구성 성분에 있어 ‘개’와 연관된 복합명사 등이 주어 성분이나 목적어 성분이 되어 속담이나 관용어를 이루기도 한다.

○ ‘개’와 연관된 명사구의 확대 형식은 다음과 같다.

- ① 개+명사, 명사+개
- ② 수식어+개
- ③ ‘개’ 관련 명사구+접미사
- ④ 개+격조사+명사

○ ‘개’의 부정적 의미 전이

① 복합명사 : 개 + 명사(X)
 수식어 피수식어



